

후지사토 고마가타케산 정상

이곳은 후지사토 고마가타케산(1,158m)의 가장 높은 지점이다. 맑은 날에는 북동쪽으로 이와키산(1,625m)이 보인다. 서쪽에는 시라카미 산지의 핵심 지역인 원생림이 있다.

시라카미 산지는 1993 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아키타현과 아오모리현의 일부를 포함하는 이 지역은 완충 지대와 보호구역인 핵심지역, 이렇게 두 곳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전 허가 없이 핵심지역에서 하이킹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시라카미 산지의 대부분은 너도밤나무 노령수로 뒤덮여 있으며, 핵심지역은 8,000 년 넘게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았다. 이 원생림은 일본에 남겨진 가장 큰 원생림 중 하나다. 숲이 외진 곳에 있고 사면의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어려워서 주변지역은 일본 혼슈의 마지막 비경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는 에도시대(1603~1867)까지의 이야기다. 해안을 따라 발전한 마을은 어업과 약간의 임업에 의존했는데, 숲에는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깊은 숲속은 광범위하게 개척되지는 않았다.

깊은 산 속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산에 들어가던 이는 주로 나무꾼과 겨울이 되면 사슴과 곰을 잡으러 산속에 들어가는 사냥꾼인 마타기(일본의 산악지대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집단 수렵을 하는 자) 뿐이었다. 그 수는 상당히 적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옛날 방식으로 사냥을 계속하는 마타기도 있다.